



주말 '징맛비' 예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예방관리 당부

- 농촌진흥청, 3일 농촌진흥기관 농업재해 담당관 영상회의 개최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확인, 기상 정보·농작물 관리 철저
- 작물별 사전·사후 대응 방안 전파, 피해 최소화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지역별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며,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7월 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재해 담당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농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풍수해 발생 및 취약 지점(1,628개소)에 대한 보완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 안전을 포함한 분야별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에 따라 중앙-지방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와 작물별 생육 상태 등을 분석해 사전·사후 대응 방안을 현장에 전파하고 있다.

△벼= 배수로 내 잡초와 퇴적물 등을 제거해 침·관수를 예방한다. 최고분얼기에는 논물을 빼 뿌리 활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이삭거름 주는 양은 토양검정 결과와 벼잎 색(엽색) 등 생육 상태를 보며 판단한다. 잎이 짙은 녹색이면 질소 성분 과다가 우려되는 상태이므로, 질소 비료량은 줄이고 칼륨 비료량을 늘리면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집중호우로 침·관수 피해가 발생하면 벼잎 끝부분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게 서둘러 물을 빼주고, 물 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높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한다.

△노지 밭작물= 밭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낸다. 강한 비 바람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참깨·고추 같은 작물은 줄 또는 개별 지주를 보강한다.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는 비 오기 전후로 살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비가 그치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에는 흙을 보완하고, 생육이 약해지면 요소 0.2% 액을 살포한다.

△과수= 초생재배 과수원에서는 배수로 주변을 정비하고 물길을 확보한다. 경사지에 있는 과수원은 집중호우 시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으므로 짚·비닐 등으로 덮어 보강한다. 지주 선은 팽팽하게 조이고, 가지는 지주시설에 고정한다.

비가 그친 후 떨어진 과실과 외부에서 유입된 흙은 신속히 제거하고, 탄저병·결무늬썩음병 예방 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충분히 살포한다. 강풍에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바르고, 피해 정도에 따라 나무 자람새(수세)와 착과량을 조절한다.

△인삼= 비 오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를 마치고, 두둑 높이를 올려준다. 해가림 시설은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므로, 각도(24°)를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당겨주고, 구간마다 버팀목으로 지주목을 고정한다.

침수 피해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물을 빼고, 깨끗한 물을 분무해 작물에 묻은 토사를 씻어낸다. 6시간 이상 침수해 있던 작물은 뿌리 관찰 후 조기 수확을 고려한다. 잣빛곰팡이병, 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방제한다.


△시설 온실·축사=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등)과 축사 내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전기 플러그는 뽑아둔다. 노후 배선, 전선 손상, 플러그·콘센트 그을림, 누전차단기 내려감 등의 문제는 반드시 전기 안전 점검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치한다.

시설 온실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외부에 설치된 고정끈으로 피복재를 골조에 단단히 고정하고, 찢어진 곳은 보수한다. 강풍이 예보되면 천창·측창, 여닫이문을 닫고, 환기팬을 가동해 내부 압력을 낮춘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가축을 대피시킬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축사 내부는 충분히 환기하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한다.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변질된 사료는 급여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올해 늦장마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등을 활용해 기상 정보와 농작물 관리 방안을 수시로 확인, 대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안전 관리 요령 안내문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담당자	지도사	이우일 (063-238-1052)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안전관리요령

여름철에는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벼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물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금과 오물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부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침·관수 벼 흙양금 및 오물세척 효과 (감수율)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 (이삭편후 10일)	30 → 16 %	40 → 20 %
호숙기 (이삭편후 20일)	20 → 11 %	30 → 16 %
황숙기 (이삭편후 30일)	5 → 3 %	10 → 5 %

* 침수: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밭작물·원예작물

밭작물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반드시 농수로와 연결하여 침·관수해 사전 예방
- 침·관수 발생 시 조속한 물빼기 실시와 동시에 잎에 묻은 양금 제거
- 도복이 발생하고 과습이 지속될 경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잡초 제거를 겸한 걸흙을 긁어 주기(복주기)로 부리 활력 촉진 향상
- 생육이 불량한 작물은 작물에 따라 0.2~1% 요소액 잎에 뿌려 주기

원예작물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탄저병, 검무늬썩음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인삼

- 해가림 설치 시 각도(24°)를 준수하면서 피복물을 팽팽하게 유지하도록 설치
- 강풍에 대비하여 해가림 시설 구간구간 버팀목으로 지주목을 고정하고 방풍망 설치
- 침수 시 최대한 빠르게 물을 빼주고, 깨끗한 물로 양금을 씻어줌
- 잣빛곰팡이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버팀목 설치



방풍망 설치



정비 잘된 고랑



축산

축사·전기시설 점검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내 충분한 환기와 수시 분뇨제거로 유해가스 발생방지 및 적정 습도 유지
- 가축 및 축사소독·방제장비 확보 및 차단방역 철저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변질된 사료는 주지 않도록 함



농업시설물 관리요령

비닐하우스 등 풍수해 위험지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비닐 사전 제거 하우스



일반 피해 하우스



피복비닐 보수, 환기창 등 개폐부위를 점검하여 하우스를 철저히 밀폐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
- 고정끈 확인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 등 하우스 주변 정리
- 하우스 벽면 브레이싱(가새) 설치,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예방
- 깨끗한 물로 작물 및 기자재 등을 씻어주고 방제를 실시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 요청



농기계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오물 등은 제거한 후 기름칠을 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한다.

- 물에 잠긴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하고 기름칠을 한 후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안전사고 예방

집중호우시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등 위험시설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한다.

- 천둥·번개 등 악천후로 인한 낙뢰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를 한다.
- 하천도로, 지하차도, 다리 등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농업기술상담 | 농촌진흥청(1544-8572),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정보 |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